

2026.07.09 글로벌 금융 시장 장중 브리핑 및 전략적 뷰

생성일시: 2026-07-09T13:01:47+09:00 | 리포트 유형: 장중 업데이트

Domestic  KOSPI 7,260.60 (+0.19%) / KOSDAQ 795.53 (+1.34%)	US Equities  NASDAQ 25,818.69 (+0.00%) / DOW 52,348.39 (-1.09%)	Macro  WTI \$74.23 (+\$2.62) / US 10Y 4.581% (+5bp)
 변동성 극대화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, 외인·기관 매수세와 반도체 주도로 코스피 7,500선 회복 시도 및 3%대 반등장 연출.	 글로벌 디커플링 미·이란 긴장 고조로 유럽(DAX -2.23%) 및 다우 지수(-1.09%) 급락 반면, 나스닥과 亞 일부 증시는 반도체 모멘텀으로 방어.	 매크로 연쇄 작용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유가 급등(WTI 5.2%↑), 안전자산(금, 비트코인) 선호 심리 강화.

시장을 지배하는 두 가지 힘: AI 모멘텀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충돌

Diagnostic Comparison Matrix				
반도체 수퍼사이클 (Bull/Momentum)			중동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(Bear/Risk)	
Key Drivers	SK하이닉스 나스닥 ADR 상장(10일) 기대감 최태원 회장 방미(젠슨 황 회동 관측) 2분기 실적 호조 전망		Key Drivers	미·이란 충돌 재점화 공포 트럼프 대이란 공습 예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
Market Impact	나스닥 하락 방어 (25,818.69 사수) 코스피/코스닥 급반등 견인 (외인·기관 쌍끌이 매수)		Market Impact	유가 80달러 돌파 우려 (WTI 급등)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(+5bp) 글로벌 증시 투심 위축 및 혼조세

핵심 진단: 현재 증시는 '반도체 투심 위축 극복'과 '중동 지정학 리스크' 사이에서 극심한 벼랑 끝 줄타기(변동성 장세)를 진행 중. 급변동성 제어 장치 마련이 요구됨.

국내 증시: 패닉 셀링 이후의 극적인 반등과 변동성 장세

KOSPI



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 발동 및 5%대 폭락 마감 후,
장중 3%대 반등하며 7,500선 회복 시도.

KOSDAQ



800선 붕괴 위기 속에서 반도체 투심 회복과 함께 동반 상승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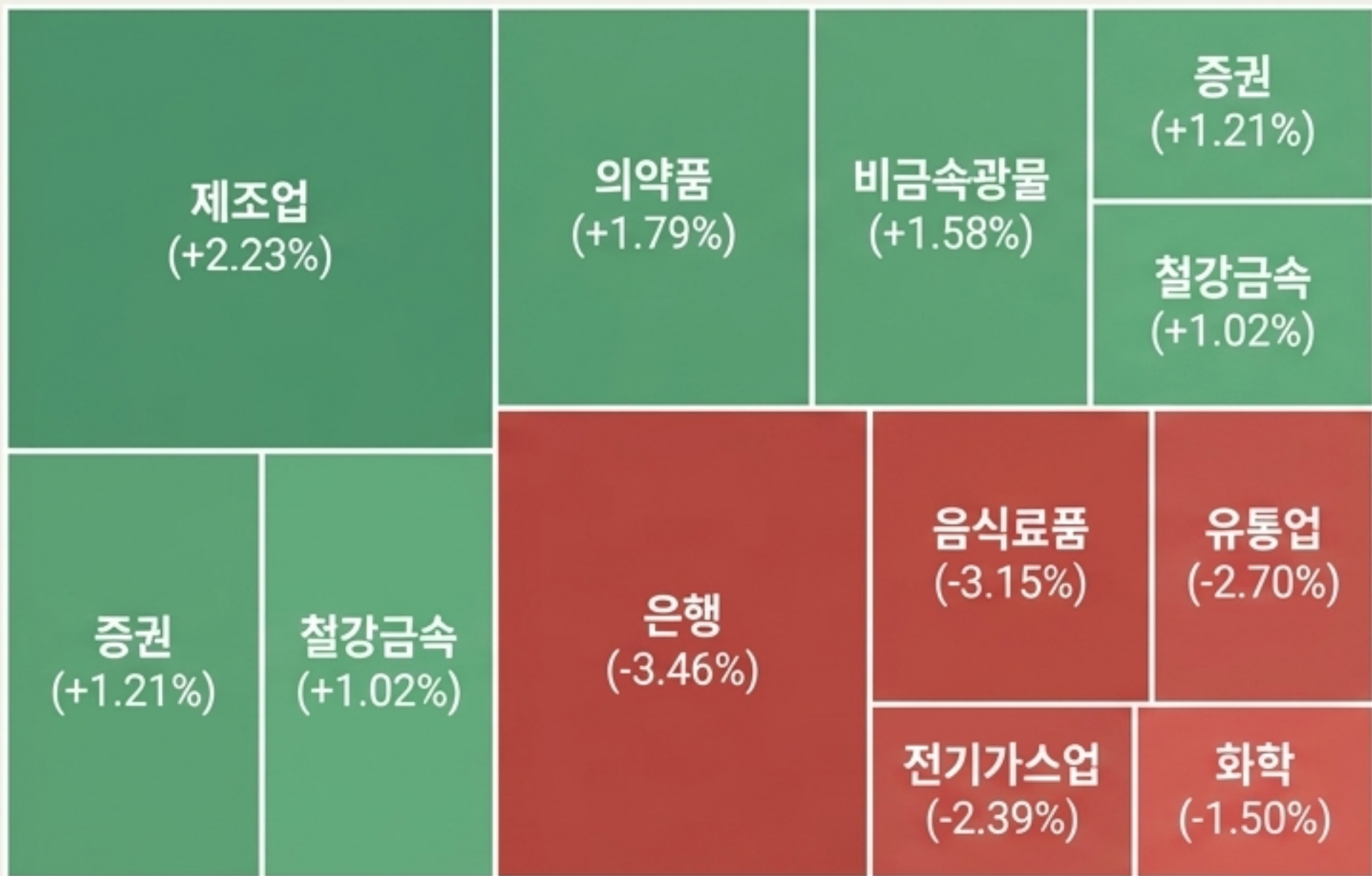
Market Drivers

투자 주체: '너무 빠졌나' 인식에 따른 외국인/기관의
쌍끌이 저가 매수 유입.

핵심 동력: 삼성전자·SK하이닉스 등 대장주 급등이 지수 견인
(언론 보도 기준 삼성 5%, 하이닉스 9% 폭등세 연출)

산업별 자본 흐름: 제조업·의약품 강세 vs 은행·음식료 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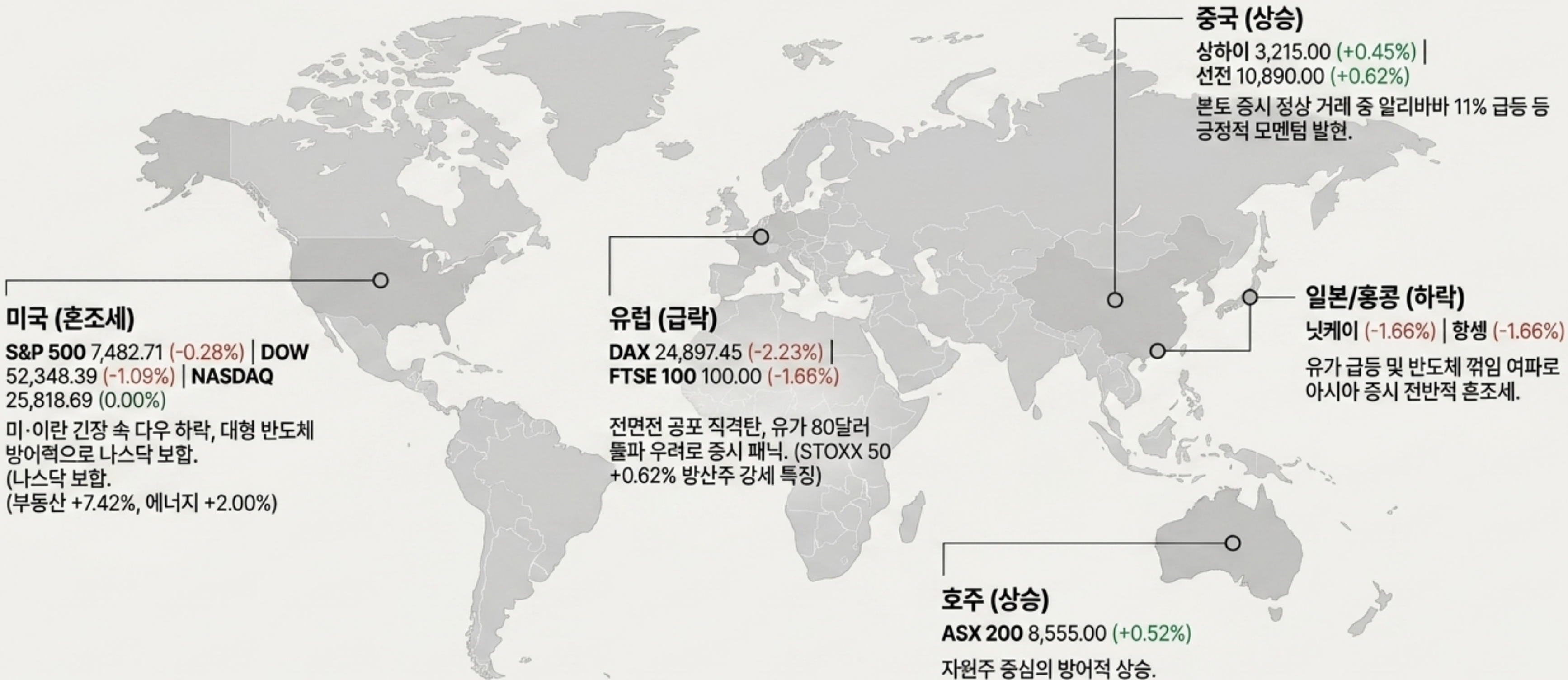
Sector Heatmap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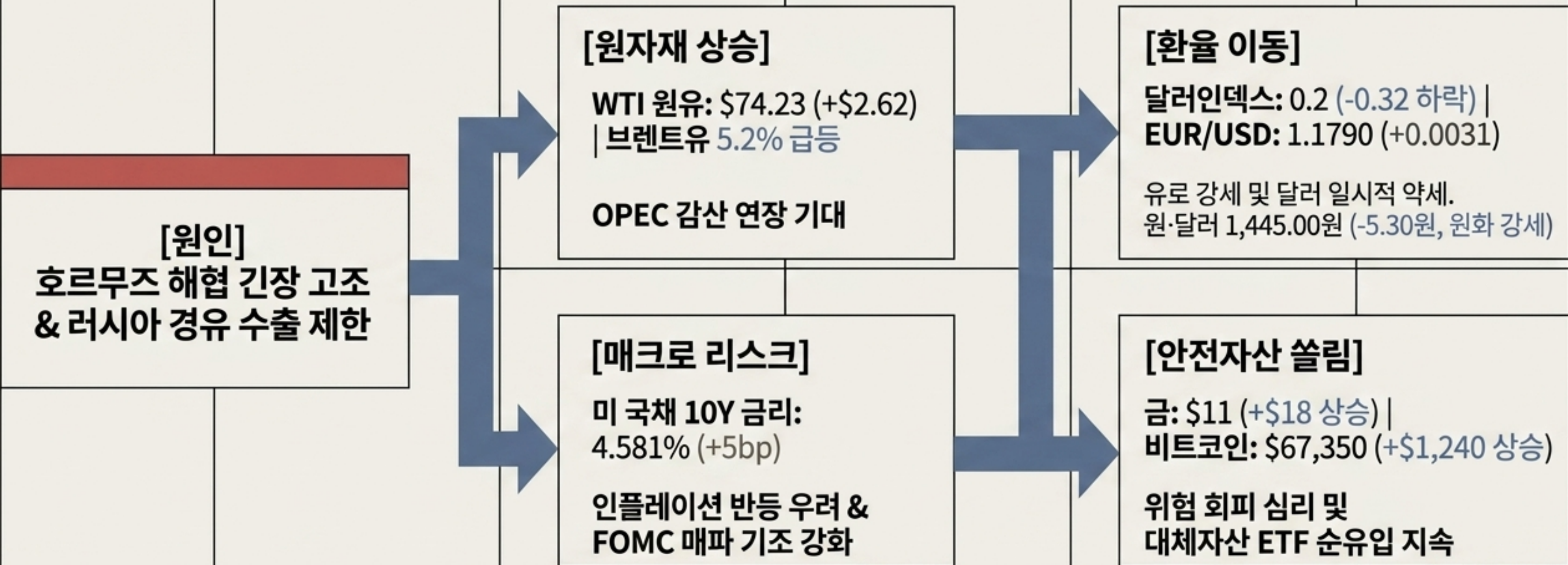
시가총액 상위 동향

SK하이닉스	2,168,000원	+4.43%
LG에너지솔루션	318,500원	+0.95%
LG화학	255,500원	+0.20%
삼성전자	276,000원	-0.54%
장중 긍정적 뉴스에도 높은 변동성		
현대차	446,000원	-3.57%
기아	147,400원	-5.99%

글로벌 증시 지도: 엇갈린 지정학적 파급 효과



FICC 연쇄 작용: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산 가격을 재편하는 구조



핵심 트리거 1: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귀환

1. 나스닥 ADR 상장 (7월 10일)

‘역대급 흥행과 반도체 거품론의 기로’.
북빌딩 흥행 및 미국 증시 직접 데뷔에
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.

2. 경영진 방미 모멘텀

최태원 회장 및 곽노정 CEO
오프닝벨 타종 예정.
젠슨 황(NVIDIA) 회동 가능성에 따른
글로벌 AI 동맹 강화 기대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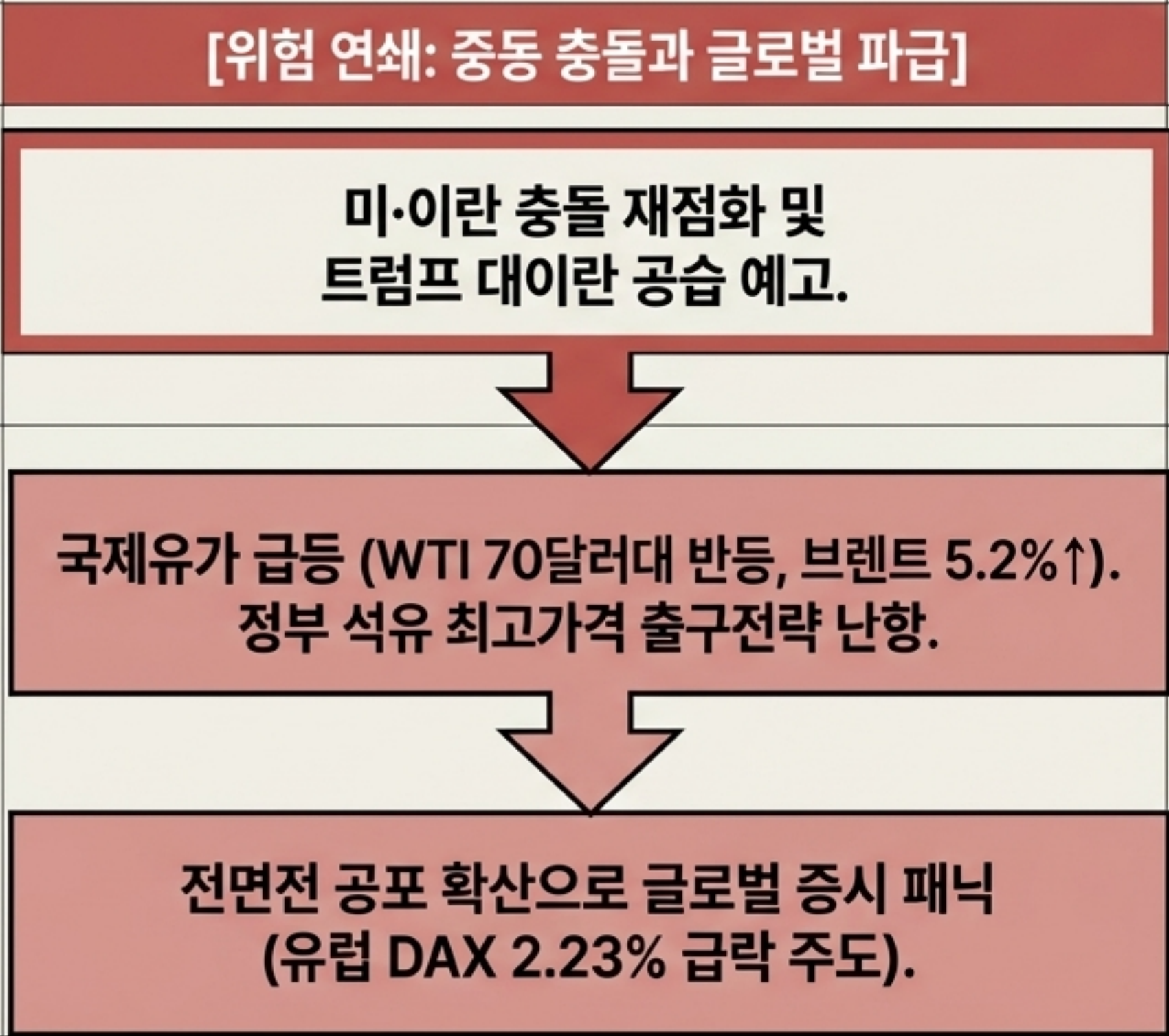


3. 2분기 실적 발표 임박

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.
(미국 AUM 300조 운용사
‘멀티플 20배는 뉴노멀...증시 모멘텀 견조’ 평가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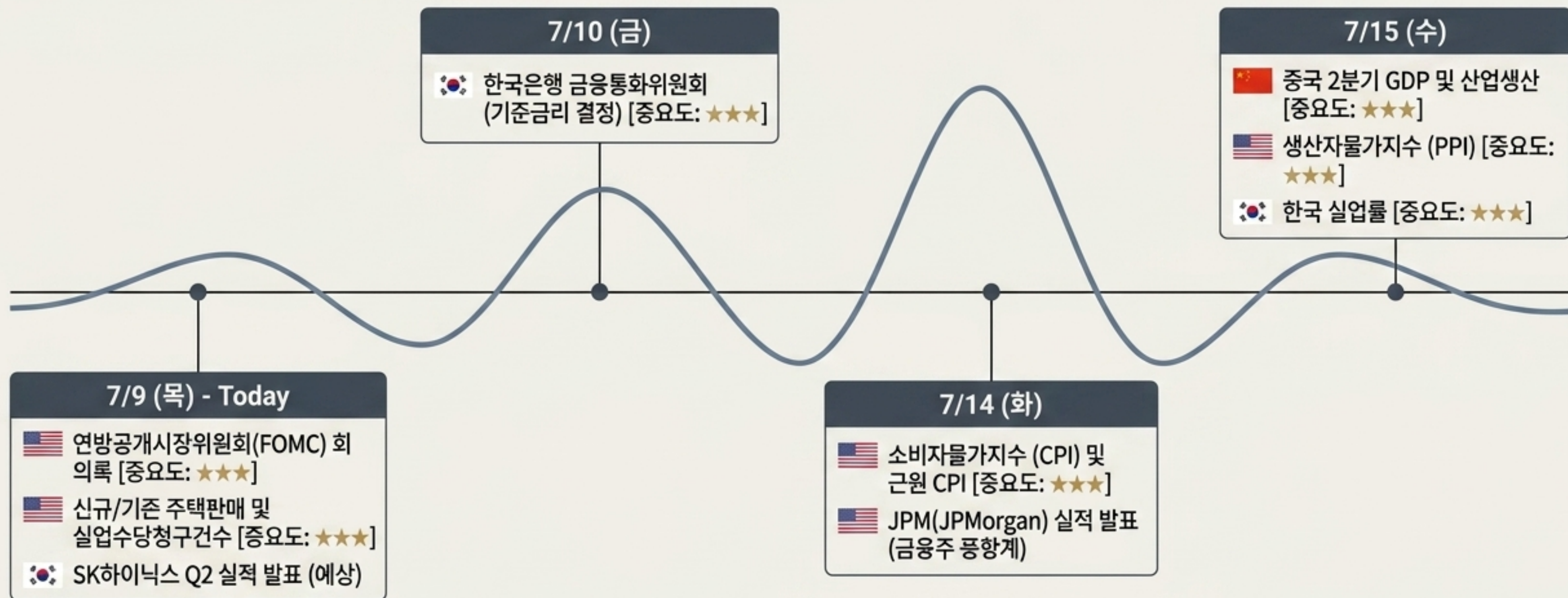
인사이트: 반도체 대장주의 긍정적 모멘텀이 코스피 하방을 방어하고 코스닥 동반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 중.

핵심 트리거 2: 중동 화약고 재점화와 인플레이션의 부메랑



위기 속 섹터 로테이션 (Sector Rotations)	
 Segment 1 (Defense)	우크라이나 평화협상 및 지정학 리스크 방산주 단기 모멘텀 부각. 글로벌 하락장 속에서도 유럽 STOXX 50이 +0.62% 상승한 이면의 주요 원인.
 Segment 2 (Energy)	에너지 섹터 헷지 미국 에너지 섹터 +2.00% 상승. S&P 500의 추가 하락폭을 방어하는 역할 수행.

주간 마켓 촉매제 (Catalyst Timeline): 매크로와 실적의 교차로



— ★★★ = 높은 시장 변동성 예상 이벤트

기관 투자자를 위한 최종 액션 플랜 (Actionable Strategies)

1



반도체 단기 매수 (Tactical Buy)

- 삼성·SK하이닉스 급등이 KOSPI와 NASDAQ을 견인 중.
- 나스닥 ADR 상장 모멘텀을 활용한 단기 매수 관점 유효. 단, 실적 부진 시 급락 리스크 헤지 필요.

2



방어주 비중 확대 (Defensive Rotation)

- 중동 및 미·이란 긴장 고조로 위험 회피 심리 발동.
- 다우 및 유럽 DAX 급락에서 보듯, 포트폴리오 내 방산 및 유틸리티/필수소비재 등 방어주 비중 확대 고려.

3



원·달러 매수 관점 (FX Strategy)

-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(+5bp) 대비 달러 인덱스 일시적 약세.
- 현재 원화 강세(1,445.00원, -5.30 하락) 국면을 활용한 원·달러 매수(Dollar Buy) 전략이 유리한 위치.

4



리스크 모니터링 (Key Watch-outs)

- 유가 80달러 돌파 여부 및 호르무즈 해협 물리적 충돌 모니터링.
- 10일 BOK 금통위 및 14-15일 미국 CPI/PPI 발표에 따른 금리 경로 재평가 대비.